홀로

(ver1.01/2017.11.17)

원작/ 허은범

각본/ 손병주

감독/ 손병주

시놉시스:

대학가의 한 원룸, 평범한 대학생, 지영의 방에는 귀엽고 순수한 청년 토리가 있다. 서로는 한 몸인 듯 서로 살갑게 지내면서 즐거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 그러다 한남 자가 지영에게 전화를 하고, 지영은 외출해서 남자와 즐거운 데이트를 보낸다. 동시에 괴로워하는 토리, 집안을 헤집으며 몸부림친다. 지영이 집으로 돌아오고 엉망이 된 집을 보며 토리에게 화내기 시작한다.

연출의도:

토리는 강아지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의존하는 세상은 지영, 지영과 함께하는 조그마한 원룸입니다. 그런 존재에게 주인(지영)의 부재는 끝을 알 수 없는 불안감입니다. 그러한 형태의 불안을 불리불안증라고 합니다. 넓은 세상을 보며 사는 인간에게 그러한 형태의 불안은 사실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리라는 강아지를 인격화 하여 그것이 연애관계에서 배우자의 상실이라는 불안과 겹쳐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의지하는 존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인격화된 토리의 시선에서 보여주고자 합니다.

 등장인물

지영 20대초중반 / 여성 / 대학생 / 우리 주변에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대학생, 진지하지만 덜렁이고 또 따뜻한 연애도 필요한 캐릭터

토리 20대 초반 / 남성 / - / 귀엽고 산뜻한 느낌의 남성 순수하며 무엇보다 지영만을 바라보며 지고지순하다.

남자 20대 중반 / 남성 / - / 세련되고 훤칠한 이미지의 남성

S#.1 토리의 방 낮

대학가의 어느 원룸 안, 창문 밖에서는 따뜻한 햇빛이 들어오고 있고, 방안엔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가득하다. 그리고 침대 위, 전공서적을 펼쳐 놓고 노트북으로 뭔가를 열심히 작성하는 지영이 있다. 지영은 수면바지에 묶음 머리, 안경차림인 모습. 그런 지영의 곁으로 오는 토리, 토리는 껴안 듯 지영의 옆을 파고든다.

**지영**

그만해~

지영은 귀여운 토리의 장난을 즐거워 하며 머리를 쓰담는다. [꽁냥꽁냥]

* : cut to

-지영이 주방에서 프라이팬으로 뭔가를 볶고 있다. 핸드폰(레시피)을 열심히 보며 무언가를 고심하며 만드는데 토리가 다가온다. 토리가 뒤에서 백허그를 하려하자 지영이 젓가락을 듯 손으로 토리의 코를 밀어낸다.

지영

냄새좋지? 기다려~

-장 거울 앞에서 옷을 입어보는 지영, 옷이 잘 맞나 좌우로 돌아본다. 지영은 고개를 돌려 토리에게 어떠냐고 물어본다. 토리는 러그 위에 앉아서 살짝 끄덕인다.

-지영은 데스크탑으로 무언가 작업을 하고 있다. 토리는 중간에 뭐하냐는 듯 얼굴을 들이민다. 지영은 토리를 끌어안으며 화면을 본다.

지영

아~ 안풀리네

-침대위의 지영은 영화를 보고 있다. 지영의 무릎을 배고 편안한 듯 있는 토리, 어느순간 지영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울린다.

지영

여보세요?

응

아 진짜 완전 좋지!

몇시쯤?

알겠어~

잠을 자고 있는 토리

-지영은 외출복으로 옷을 갈아 입은 채 립을 바르고 있다.

준비를 마치고 나가려 현간에선 지영은 뒤를 돌아본다. 침대위의 토리는 잠이 든 듯 하다. 지영은 살짝 눈치를 보더니 불을 끄고 조용히 나간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 토리는 눈을 뜨고 그제야 문 앞으로 다가가 멈춰선다. 계단을 내려가며 누군가의 전화를 받는다.

지영

응 자기야~

지금 출발했어

문을 바라보며 애처로운 표정을 짓는 토리

S#.2 카페/토리의 방 낮

-카페

카페에서 핸드폰을 보는 지영, 그런 지영에 어깨로 누군가의 손이 얹혀지고 고개를 들어 보는 지영의 모습은 밝다. 지영과 남성은 같이 사진을 찍고 음료를 나눠 마신다.

-토리의 방

토리는 방안에서 홀로 제자리를 왔다갔다 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입술을 깨물기도 하고, 깊은 고민에 빠진 듯 고개를 높이 들고 한숨을 쉰다.

S#.3 길거리/토리의 방 밤

-길거리(하양 베스킨 라빈스 앞 LED조명 터널)

남자의 팔짱을 낀 채 행복한 듯 밤 산책을 즐기는 둘

지영이 남자를 한번 보더니 한발 짝 앞으로 나아가며 맞잡은 손으로 남자를 당긴다. 편안한 표정으로 산책을 하던 남자는 지영의 손에 맞춰 이끌린다.

-토리의 방

토리는 방에서 마른 세수를 하며 한 숨을 쉰다. 손가락을 입술로 깨물며 눈 동자가 몹시 불안하다.

S#.4 인형뽑기 기계 앞/토리의 방 밤

-인형 뽑기 기계 앞에 멈춰서는 둘

지영이 인형 뽑기를 뽑아달라고 손으로 기계를 가르킨다.

남자는 코트에서 손을 빼서 손바닥을 문지른다.

기계 안에서 인형이 올라오지만 이내 떨어진다. 아쉬운 탄성을 내지만 표정은 즐겁다. 상품출구에 드디어 인형이 나오고, 남자가 지영에게 넘겨준다. 지영은 귀엽다는 듯 인형을 본다.

-토리의방

토리는 무언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듯 인형을 찢고 배개를 바닥에 던지는 등 폭력적이고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S#.5 술집/토리의 방 밤

-선술집

남자와 지영은 이제 술집이고 얼굴이 붉어진 지영과 다소 멀쩡한 남자는 같이 잔을 부딪히며 건배를 한다. 지영은 기분좋게 취해서 다소 백치미적 웃음으로 잔을 내밀고 남자 웃으며 따라준다. 지영이 앉은 채 비틀거리자 남자가 살짝 받혀준다. 지영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본다.

-토리의 방

이윽고 토리는 머리가 다 헝클어져 페인과 같은 모습이고 지영이 입었던 수면바지를 가슴팍에 앉고 자괴감이 드는 듯 입술을 문다.

S#.6 원룸 앞/토리의 방 밤

-지영의 집 앞, 손을 잡은 남자와 지영은 현관 앞에 멈춰 선다.

남자는 사랑스러운 듯 지영을 보고

남자

언능 들어가 쉬어

지영

응 자기도 조심히 들어가고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계속 서 있는다.

그리고는 조금씩 다가와 입을 갖다 대는 둘

주차된 차들 사이로 붙어 있는 둘의 모습이 보인다.

-토리의 방

홀로 벽에 기대 앉아 눈물 짓는 토리

S#.7 토리의 방 밤

-현관 문이 열리고 지영이 들어온다.

지영은 비틀 비틀 들어오다가, 불을 키는데 취한 표정에서 신경질적인 표정으로 바뀐다. 토리는 반가운 표정으로 지영을 본다.

지영은 바닥을 보며(토리와 눈을 마주 치지 않고)토리에게 말한다.

지영

하아....

야...

너 지금 뭐하자는 거야

당황한 표정의 토리

지영

정말 내가 힘들다..

매번 이러면 어쩌자는 거니..

토리야....

지영의 얼굴에서 180도 전환되며 토리의 모습이 보인다.

지영의 시선으로 본 토리의 모습:

어질러진 방안에 토리{강아지}가 있고 반가운 듯 혀를 헥헥거리고 있다.

토리[강아지]의 표정에서 어두워진다.

-END